

한가위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목 도 다같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시편 37:3~5)

사랑의 하나님! 무척이나 덥고 힘들었던 여름을 보내고, 새로운 계절과 시원한 날씨를 허락하셔서 다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중추명절에 온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지나온 시간을 감사하고 남은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460장(새찬송가 301장)「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같이
기쁨으로찬양 46장「나 무엇과도 주님을」

기 도 가족 중에서 다같이

말씀나눔 요한복음 3장 16절 인도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교독으로)

찬 송 405장(새찬송가 305장)「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같이
기쁨으로찬양 54장「나의 맘 속에 온전히」

축복과 비전나눔 다같이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품은 비전을 가족들과 나누고
집안 어른들은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찬 송 403장(새찬송가 303장)「나 위하여 십자가의」 다같이
기쁨으로찬양 69장「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기도문 다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요한복음 3:16)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선생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니고데모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주십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살면,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과는 삶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을 한해, 해결되지 않은 여러 어려움들은 마치 우리 자신을 버림받은 존재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믿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사랑에 대하여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하나 묵상해봅시다.

1.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적이며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군가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했다면 그것은 자기 전부를 내놓고 베푸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은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다시 거 뒤들이지 않을 헌신적이며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안된다고 해서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취직이 더디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노력한 만큼 수입이 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쇠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잘되고 또 잘될 때까지 결코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의 끈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음을 명심하고, 그 사랑에 근거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내딛게 되기를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습니다. 16절 끝 부분에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지금과 같은 삶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 즉 그분의 통치 아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망스럽고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현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헤쳐나가지 못할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영원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3.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선별적이라면 그것은 실제적이거나 실효적인 사랑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란 주님을 알고 신뢰하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라면 신분, 나이,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입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큰 신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삶의 과정이 어떠하든지 포기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도 떼어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표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평안, 마음의 평안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평안과 평강이 있다면, 삶 속에서 영원한 영적 에너지가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유혹과 절망, 그 어떤 고통도 넉넉히 이겨 내며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봅시다.

지난 여름, 참으로 더웠고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듯한 날씨가 아니었을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힘든 현실을 극복하는데 좋은 묘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헌신적이며 절대적인 사랑, 영원하고도 실제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의 모든 한계와 고통은 넉넉히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온가족 모두가 남은 2016년 역시 해와 달처럼 누구에게나 환하게 비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